

무안공항 ‘첫 태국 전세기’ 입국... 전남 관광 청신호

올 태국 관광객 1만3000여명 방문
관광설명회 성과...3월 14회 운항
3월부터 무사증 입국 동남아 확대

올해 전남 관광 비상 신호탄이 될 첫 태국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전남도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 16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 상품 업무협약'의 성과물이다.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2400여명의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며 연간 방문 추정 인원은 1만3000여명이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연 무안군의회 의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섬, 바다 등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전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시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태국에선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전세기 입국자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의 정기 항공편으로 1만여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이 예정돼 역대 최대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세기로 전남을 처음 찾은 태국 관광객 174명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담양 죽녹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박4일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는 태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확대 유치에 나선다.

무사증은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ilbo.com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열린 '태국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식'에서 입국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올해 소득·연령·횟수 제한 폐지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양·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나이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소득 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시술자가 1년 365일 원하는 시기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체 난임부부에게 횟수와 소득기준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제한

이 폐지되고 사실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방치료는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난임부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난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난임부부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전문 치료를 무료로 받도록 순천향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178건, 1530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간재 기자

광주시-의회 "‘시민 행복’ 위해 상생·소통"

조기 추경 합의 이어 임시회서 언급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상생과 소통을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연설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줬다"며 "교훈에 힘입어 제2차 광주전략회의를 통해 원활한 예산 편성과 심의를 위한 대원칙을 확립했고,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행정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시의회도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사슴은 동물 중 유일하게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고 배고픈 동

료들과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운다'는 뜻인 시정의 '유유낙명'을 언급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살자는 의미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전제는 사전 소통과 양보, 타협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와 시의회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시의원들의 '쪽지 예산'과 민선 8기 시 공약 사업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예산이 증액 없이 삭감되며 불씨가 커졌지만, 지난 27일 전략회의에서 조기 추경에 합의하는 등 소통을 강조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광주시, 시민 선정 5개 중점과제 안전감찰 추진

어린이 놀이시설 2174곳 등

광주시가 시민 선정 5개 중점과제 등 2023 안전감찰 운영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전감찰은 시민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문제점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광주시·자치구·공사·공단이다. 광주시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감찰을 통해 예방·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 중심의 중점과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온라인 설문을 진행,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설문에서 1순위로 선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217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활

용한 △설치·정기시설 검사 △보험가입 여부 △관리주체 의무사항 확인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감찰한다.

2순위로 선정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협업해 5개 자치구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노상주차장 이전·폐지 등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육교시설의 손상상태 등 긴급안전점검을 한다. 또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규모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감찰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축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암행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중앙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한 범정부 안전감찰 협의회를 통해 안전감시 시스템을 견고히 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구축 박차... "지역경제 활력"

고흥간 고속도로 용역비 3억원
제3순환도로 제2구간 9.7km 개통

광주시가 인근 시군 지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동남축의 고속도로 건설(87.7km)을 위한 사전기획조사 용역비 국비 3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광주~고흥간 고속도로는 나로우주센터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광주·전남 남해안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이 될 것

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건설까지는 국가계획 반영과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광주시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공용중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IC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11.2km)가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민 숙원 사업인 고속도로 본선의 확장구와 용봉IC 진입로 건설이 가시화됐다. 또 지난해 12월 광주외곽 제3순환로 일부 구간인 광주-남광산 분기점(9.7km)도 개통하면

서 호남고속도로에서 진곡산단·하남산단·평동산단으로 접근이 쉬워져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광산 나들목으로 국지도 49호선이 연결되면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광주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인 서남축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47km)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광주-영암간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남권 중심도시 광주시의 방사형 고속도로망이 완전한 형태를 갖춘다.

최황지 기자

민주 광주시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개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조직 강화를 위해 당원 정비 사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당 소속 39만명 중 권리당원 6만명이 대상이며, 정당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거

나 다수의 당원이 특정 주소지로 등재된 경우(주소지 중복), 허위 기재 등을 점검한다.

당원 정비는 8개 지역위원회별로 직접 연락을 통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

다. 시당 관계자는 "당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는 민생 파탄과 검찰 독재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은 2016년 24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5만명이 증가한 39만명에 이른다.

김해나 기자